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결과

1. 목 적

- 현장중심 실물경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창조경제시대를 열어갈 경제 발전의 주역인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
- 비즈니스 마인드의 향상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미래의 산업협력·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리더 양성에 기여

2. 사업개요

- 1) 개최 기간 : 2016년 7월 29일(금) ~ 8월 3일(수)
- 2) 개최장소
 - 미나미산리쿠초 : 미나미산리쿠 호텔 칸요
(일본 미야기현 모토요시군 미나미산리쿠초 시즈가와쿠로사키 99-17)
 - 센다이 : 아크호텔 센다이 아오바도리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오오마치 2-2-10)
- 3)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 4) 후 원
 - 한국측 : 주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일본측 : 일본외무성, 국토교통성, 미야기현
- 5) 협 력
 - 한국측 : 아시아나항공(주), (주)투어2000, 진로(주)
 - 일본측 : 미나미산리쿠초, (일사)미나미산리쿠초 관광협회, 미나미산리쿠호텔 칸요, 아크호텔 센다이 아오바도리, 아사히맥주(주), 아사히 음료(주), (주)JTBC퍼레이트 세일즈
- 6) 위탁사업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공재)일한문화교류기금
- 7) 참석 인원 : 80명
 - 한국측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등 23개교 40명
 - 일본측 :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등 32개교 40명
- 8) 내 용 : 실물경제체험 및 문화체험을 통한 창의력 향상 및 문제 해결 능력 강화 프로그램

- 한일 양국 혼성 8개팀으로 구성, 5박 6일 합숙하면서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5주년을 맞아 양국 한일학생이 재해지역 부흥을 위해 지역 활성화 · 관광진흥, 서비스, 요양 · 복지, 농업 등의 카테고리별 부흥 현장과 일본경제현장을 체험해보고 새로운 부흥, 지역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기획, 발표까지 함께하는 체험 및 교류 프로그램

※ 사업 카테고리 : 사업 체험과 관련 있는 4개 분야
(지역활성화 · 관광진흥, 서비스, 요양 · 복지, 농업)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캠프 전	캠프 사전설명회, 캠프 사전준비(카테고리 선정 등의 작업)
7월 29일(금)	오리엔테이션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자기소개, KJ매거진 발행 등) 일본실물경제 현장체험 준비
7월 30일(토)	카테고리별 체험장 방문 (사업장 견학 및 현장체험) 도전 골든벨(퀴즈형식 교류 프로그램) 사업아이템 결정
7월 31일(일)	사업발표회 준비 사업안 최종 결정(광고, 홍보물 제작 등)
8월 1일(월)	사업발표회 심사발표, 시상 및 수료식, 폐회식, 슬라이드쇼 단체사진 촬영 KJSFF/JKSFF(한일학생미래회의)소개 BBQ & Campfire
8월 2일(화)	일본문화체험(마쓰시마 유람선) 팀별 센다이 시내 관광 친구에게 한마디 Finale Festival & 전통의상 패션쇼 양국 전통놀이
8월 3일(수)	양국 청소년 작별 인사 한국학생 공항 이동
캠프 후	감상문 쓰기

3. 개최 성과

-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양국의 전도유망한 젊은 세대(고교생)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과 창업교육을 통한 비즈니스 마인드와 창업·기업가 정신 고취
 - 실물경제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 창업아이디어를 발굴·발표함으로써 비즈니스 마인드 고취
 - 각 카테고리별 사업장에서 경영과 마케팅의 기초 개념을 배우고, 체험하여 창업 아이템을 도출
- 한일 간 경제협력 인맥 단절 가시화로, 장차 양국의 미래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청년인재를 양성
 - 캠프 지역 지자체의 협력으로 현장중심의 실물경제와 창업교육을 통해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양국 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가교역할
- 한일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일교류 촉진을 위해 한일 양국 청소년들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양국협력의 분위기를 확산

4. 사업발표회 주요내용

가. 사업 발표회 및 표창·수료식 결과

○ 심사위원

(사)한일경제협회 이종운 상근부회장

주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정대수 부총영사

진로(주) 양인집 대표이사

(일사)일한경제협회 코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전무이사

도레이(주) 고이즈미 신이치(小泉 愼一) 고문

미나미산리쿠초 산업진흥 타카하시 카즈키요(高橋 一清) 과장

○ 참석 내빈 및 학생 : 총 34명

한국측 (1명)

아시아나항공(주) 전인수 센다이 지점장

일본측 (20명)

미나미산리쿠초 사토 진(佐藤 仁) 총장

미나미산리쿠초 산업진흥과 관광진흥부 미야카와 마이 (宮川 舞) 계장
 미나미산리쿠초 산업진흥과 관광진흥부 누마쿠라 류타로 (沼倉 龍太郎) 주사
 (일사)미나미산리쿠초관광협회 오이카와 요시노리 (及川 吉則) 회장
 (일사)미나미산리쿠초관광협회 호리이 아카네 (堀井 あかね)
 미나미산리쿠 투어리즘넷 타카하시 미쿠(高橋 未來) 채생사
 미야기현 현청 경제상공관광부 미사카 타츠야 (三坂 達也) 참사 겸 국제경제·교류 과장
 미야기현 현청 경제상공관광부국제경제교류과 노로 히데키 (野呂 英樹) 과장 보좌 (반장)
 미야기현 현청 경제상공관광부국제경제교류과 가와다이 타카아키 (川代 隆哲) 주사
 외무성 일한경제실 코바야시 아츠시(小林 篤) 외교실습연구원
 미나미산리쿠호텔칸요 아베 노리코(阿部 憲子) 주인
 미나미산리쿠호텔칸요 제1 영업과 이토 순(伊藤 俊) 과장
 카호쿠신보사 나카야마 하루히사(中山 晴久) 상무이사
 카호쿠신보사 영업국영업부 이시하타 카츠히로(石畑 雄啓) 주임
 일간공업신문사 동북북해도총국 총국자 코우사카 타쿠 (神阪 拓) 총국장
 일간공업신문사 동북북해도총국 타키히라 유우야 (高平 裕哉)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제3부 하츠세가와 시게루(初瀬川 茂) 부장
 자혜원 사사키 히로미 (佐々木 博美)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와모토 타카아키 (岩本 高明)
 일본방송협회 국제부방송국 World News부 오키모토 켄고 (岡本 健吾) 부부장
 <학생 13명>
 김세훈
 손소연
 송용찬
 와치 슌스케
 후지타 나나코
 후루카와 타쿠
 미도리카와 스즈네
 사사키 니이나
 카네코 타카오
 하야마 요시히사
 카키누마 신타로
 키케가와 유리
 우노 테루키

- 사업발표회 내용 : 지역활성화 · 관광진흥, 서비스, 요양 · 복지, 농업 등 4가지 카테고리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비즈니스 기획 및 사업설명회 진행

시상결과	팀NO 사업카테고리	팀명	사업명
			(사업 내용)
우수상	1팀 지역활성화 · 관광진흥	PUZZLE	미나미산리쿠 여름축제
			미나미산리쿠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축제
심사위원 특별상	2팀 서비스	니코니코니	MSW : 미나미 산리쿠 워터
			디자인과 QR코드로 특성화 시킨 미나미산리쿠의 물을 판매
우수상	3팀 요양 · 복지	SLEEPIZE	Silver Ocean
			요양 · 복지 전문 컨설턴트
모스트 임프레시브상	4팀 농업	4 THE FUTURE	흐름프로젝트(流 project)
			농작물의 생산부터 가공 · 판매 · 홍보까지 담당하는 회사 설립
팀워크상	5팀 지역활성화 · 관광진흥	OH! Dang5	FUNCY Trip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제공
인기상	6팀 서비스	우마쿠 유쿠	가자가자 미나미산리쿠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나미산리쿠 지역 가이드 서비스
최우수상	7팀 요양 · 복지	즌다즌다	KIND GO
			요양원 이용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개인 복지 서비스
베스트 퍼포먼스상	8팀 농업	∞ (Infinite)	Farm-Pal
			한국, 일본 양국의 유저들이 협력, 경쟁을 통해 농작물재배, 구입 및 판매까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 심사결과

- (1) 최우수상 : 최고로 우수한 사업 기획력과 창의력을 보여준 팀 수여
 - 수상팀 : 7팀
 - 상장 수여 : (일사)일한경제협회 코레나가 카즈오 전무이사
- (2) 우수상 : 우수한 사업 기획력과 창의력을 보여준 팀 수여
 - 수상팀 : 1팀
 - 상장 수여 : 도레이(주) 고이즈미 신이치 고문
- (3) 우수상 : 우수한 사업 기획력과 창의력을 보여준 팀 수여
 - 수상팀 : 3팀
 - 상장 수여 : 도레이(주) 고이즈미 신이치 고문
- (4) 심사위원특별상 : 심사위원이 특별하다고 뽑은 팀 수여
 - 수상팀 : 2팀
 - 상장 수여 : 주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정대수 부총영사
- (5) 베스트퍼포먼스 상 :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팀에게 수여
 - 수상팀 : 8팀
 - 상장 수여 : 진로 (주) 양인집 사장
- (6) 모스트임프레시브 상 : 가장 인상 깊은 발표를 보여준 팀에게 수여
 - 수상팀 : 4팀
 - 상장 수여 : 진로 (주) 양인집 사장
- (7) 팀워크 상 : 캠프기간 중 질서, 시간, 에티켓 등 합동과 단결심을
보인 팀을 운영진의 심사를 통해 결정
 - 수상팀 : 5팀
 - 상장 수여 : 미나미산리쿠초 산업진흥 타카하시 카즈키요 과장
- (8) 인기상 :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되는 상으로 캠프 기간동안 가장
활발한 활동과 좋은 인상을 남긴 팀
 - 수상팀 : 6팀
 - 상장 수여 : 미나미산리쿠초 산업진흥 타카하시 카즈키요 과장

5. 평가 및 향후 개선사항

○ 평가

- ① 실물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 훌륭한 사업아이디어가 많이 발표되었음
 -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각 카테고리별 사업장에서 경영과 마케팅의 기초 개념을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창업 아이템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② 본 캠프를 계기로 양국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고, 서로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가교역할을 다 할 것으로 평가됨
- ③ 사업부스 모의투자 양국 학생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열기로 인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 등 열띤 사업홍보의 장이 되었음

6. 개최 실적

- 2016년도 8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2,138명이 참가
 - 한국측 : 1,077명, 일본측 : 1,061명

	기간	지역	한국측	일본측	합계
제1회	04. 1.16~1.22	동경 (아사히맥주본사)	6개교 50명	4개교 62명	10개교 112명
제2회	04. 7.26~7.30	동경 (요미우리랜드)	31개교 52명	10개교 20명	41개교 72명
제3회	04. 8.18~8.22	서울 (올림픽파크)	13개교 48명	7개교 46명	20개교 94명
제4회	05. 2.11~2.15	동경 (하네다연수센터)	27개교 54명	19개교 64명	46개교 118명
제5회	05. 8.6~8.10	동경 (하네다연수센터)	20개교 46명	17개교 44명	37개교 90명
제6회	06. 2.9~2.13	동경 (하네다연수센터)	23개교 47명	17개교 59명	40개교 106명
제7회	06. 8.4~8.8	서울 (라마다서울호텔)	13개교 49명	16개교 38명	29개교 87명

	기간	지역	한국측	일본측	합계
제8회	07. 2.9~2.13	치바 마쿠하리 (국제능력개발지원센터)	22개교 38명	17개교 42명	39개교 80명
제9회	07. 8.5~8.9	동경 (하네다연수센터)	20개교 41명	20개교 34명	40개교 75명
제10회	08. 2.10~2.14	일산 (동양인재개발원)	20개교 39명	17개교 46명	37개교 85명
제11회	08. 8.3~8.7	동경 (하네다연수센터)	27개교 44명	25개교 44명	52개교 88명
제12회	09. 2.1~2.5	서울 (렉싱턴 호텔)	23개교 50명	34개교 50명	57개교 100명
제13회	09. 7.28~8.1	용인 (금호아시아나인재개발원)	25개교 44명	31개교 44명	56개교 88명
제14회	10. 2.2~2.5	오사카 (코스모스퀘어 국제교류센터)	41개교 49명	24개교 39명	65개교 88명
제15회	10. 8.3~8.7	서울 (라마다서울호텔)	34개교 49명	40개교 50명	74개교 99명
제16회	11. 2.8~2.12	서울 (렉싱턴 호텔)	38개교 50명	39개교 50명	77개교 100명
제17회	11. 8.2~8.6	서울 (렉싱턴 호텔)	34개교 47명	44개교 49명	78개교 96명
제18회	12. 1.31~2.4	오사카 (코스모스퀘어 국제교류센터)	34개교 50명	32개교 50명	66개교 100명
제19회	12. 7.24~7.28	서울 (렉싱턴 호텔)	42개교 50명	40개교 50명	82개교 100명
제20회	13. 7.28~8.1	오사카 (코스모스퀘어 국제교류센터)	47개교 50명	39개교 50명	86개교 100명
제21회	14. 7.27~7.31	사이타마 (카와고에 프린스호텔)	40개교 50명	49개교 50명	89개교 100명
제22회	15. 7.27~7.31	서울 (하이서울유스호텔)	32개교 40명	35개교 40명	67개교 80명
제23회	16. 7.29~8.3	센다이 (미나미산리쿠 호텔 칸요) (아크호텔센다이아오바도리)	23개교 40명	32개교 40명	55개교 80명
합계		연(延)	635개교 1,077명	608개교 1,061명	1,243개교 2,138명

7. 한일학생미래회의(KJSFF/JKSFF) 실시

- 2006년 6월부터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참가 학생들이 서로간의 친목을 넘어 양국 학생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제공과 미래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 한일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미래와 우호증진을 위해 KJSFF·JKSFF(한일학생미래회의)를 구성하여

활동

- 2007년 2월 일본에서의 제1회 한일학생미래회의 개최이래, 2014년까지 총 9회에 걸쳐 276명이 참석하였으며, 올해는 8월 6일~10일 한국에서 한일 양국 학생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제10회 한일학생미래회의>					
- 기간 : 2015. 8. 6.~8 10.(4박 5일)					
- 장소 :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 테마 : ‘한일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신산업’					
- 내용 : 신소재, 문화, 스포츠, 정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4박 5일간 연구,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					

○ 한일학생미래회의 개최 실적

No.	장소	일정	한국 참가자	일본 참가자	참가자 합계
제1회	일본-마쿠하리 (국제능력개발지원센터)	2007년 2월 9일 ~ 2월 12일	10명	14명	24명
제2회	한국-서울 (이비스엠버서더 명동)	2008년 2월 12일 ~ 2월 16일	15명	6명	21명
제3회	일본-도쿄 (국립청소년종합센터)	2009년 2월 9일 ~ 2월 13일	16명	17명	33명
제4회	한국-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2009년 8월 3일 ~ 8월 7일	20명	20명	40명
제5회	일본-교토 (코프 인 교토)	2010년 8월 9일 ~ 8월 13일	17명	20명	37명
제6회	한국-서울 (렉싱턴호텔)	2011년 8월 8일 ~ 8월 12일	19명	17명	36명
제7회	한국-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012년 8월 6일 ~ 8월 10일	14명	14명	28명
제8회	일본-오사카 (신오사카유스호스텔)	2013년 8월 6일 ~ 8월 10일	15명	14명	29명
제9회	한국-대전 (대전유성유스호스텔)	2014년 8월 5일 ~ 8월 9일	14명	14명	28명
제10회	한국-부산 (아르피나유스호스텔)	2015년 8월 6일 ~ 8월 10일	8명	12명	20명
연인원			148명	148명	296명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참가자들이 한일학생미래회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보다 심화된 교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한일미래를 우호적으로 성장시키고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음.

8. 캠프의 이모저모

오리엔테이션	개회인사	양국협회 관계자
		
멘토 소개	Team Magazine 작성	지진재해학습1
		
지진재해학습2	양식어업체험	카테고리별 실물경제체험-1
		
카테고리별 실물경제체험-2	카테고리별 실물경제체험-3	도전! 골든벨-1
		
도전! 골든벨-2	사업발표회 준비-1	사업발표회 준비-2



사업발표회 준비-3



사업발표회-1



사업발표회-2



사업발표회-3



시상식-1(최우수상)



시상식-2(우수상)



시상식-3(심사위원특별상)



시상식-4
(베스트 퍼포먼스상)



시상식-5
(모스트 임프레시브)



<p>시상식-6(인기상)</p> 	<p>시상식-7(팀워크)</p> 	<p>단체사진</p> 
<p>BBQ & Campfire-1</p> 	<p>BBQ & Campfire-2</p> 	<p>마쓰시마 관광</p> 
<p>센다이 자유 관광</p> 	<p>장기자랑-1</p> 	<p>장기자랑-2</p> 
<p>양국전통의상 패션쇼-1</p> 	<p>양국전통의상 패션쇼-2</p> 	<p>해산장면</p> 

9. 보도자료

한국경제

제23회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 7월 29일부터 일본 미야기현에서 개최...한일 경제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최

입력 2016-06-23 15:42:50 | 수정 2016-06-23 15:42:50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고교생이 참여하는 교류캠프가 마련된다.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양국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제 23회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를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본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윤 회장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쌓는 데 일조하려고 2004년부터 양국 고교생 교류캠프를 열고 있다" 며 "양국 청소년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산업 현장 체험과 사업 기획 등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결속하도록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나미산리쿠는 미야기현 남부의 어촌 마을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40명씩 선발한 참가자는 이 지역의 부흥현장을 둘러보고 어업 등 산업 체험에 나선다. 지역 활성화와 서비스, 요양·복지, 농업, 양식어업 등으로 팀을 나눠서 실물경제를 배운 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사업제안 발표회도 연다.

한일경제협회는 참가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돕기 위해 협회의 비즈니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양국어가 능통한 멘토를 팀마다 배치할 계획이다. 캠프 기간에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 미나미산리쿠 여름 축제, 학생 골든벨, 양국 전통놀이 한마당에도 참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경제

일본 쓰나미 피해 현장 미나미산리쿠 가봤더니...자연은 거대하고 인간은 위대하다

입력 2016-08-07 09:47:57 | 수정 2016-08-07 10:22:17

요즘 일본 곳곳에선 마쓰리(축제)가 한창이다. 주민들은 수백년 이어져온 전통축제로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이기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야기(宮城)현 미나미산리쿠(南三陸)초에서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가 6년 만에 열렸다. 어촌주민들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개된 불꽃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80명의 고교생들도 불꽃놀이를 함께 지켜봤다. 전날 도착해 처참한 대지진 피해현장을 둘러본 조성민 학생(서울 경신고 1년)은 “쓰나미가 훑고지나간 곳에서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인간의 위대함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달 3일까지 동일본 대지진 복구현장에서 개최된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에 동행했다. 닷새간 진행된 농어촌 일손돕기 체험, 창업 아이템 발표회 등을 소개한다.

미나미산리쿠, 지반 20m 높이기 공사중

미나미산리쿠초는 대지진 당시 최대 20m 이상의 쓰나미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입었다. 전체 주민 1만5000여명 중 83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중심부 건물의 80%, 전체 62%가 유실됐다. 이 지역은 대지진 발생 전까지 도호쿠(동북)를 대표하는 양식과 관광 명소였다. 지난 2일 새벽 묵던 호텔간요 6층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푸른 바다는 거대한 ‘바다 목장’이었다. 5년 반 전 호텔 2층 노천온천까지 쓰나미가 밀어닥쳤다고 설명하는 아베 노리코 여사장의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나미산리쿠 앞 바다의 양식장 모습>

8월 현재 쓰나미가 몰려왔던 해안은 물론 내륙 곳곳에서 산을 깎아 지반을 높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나미산리쿠초의 다카하시 카즈키요 산업진흥과장은 “2011년 수준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다시 와도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지반을 20m 정도 높이고 있다”며 “공사 기간을 10년으로 계획했으나 현재 속도라면 완공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구 일정이 지연되면서 집을 잃고 가설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상업시설이나 쇼핑시설도 없어 임시 장터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한일 고교생, 공동 창업 아이템 개발 몰두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는 23회째를 맞았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려면 청소년들이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4년 1월 도쿄에서 처음 열렸다. 양국의 경제현장을 둘러보고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 발표하는 형식이다. 고레나가 가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는 “양국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협업을 통해 리더십을 키우는 게 교류캠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 학생들은 낮엔 농어촌 일손돕기, 요양시설 방문 등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양국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 8개팀은 한일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을 짜내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캠프 4일째 마을회관에서 열린 사업발표회에선 고령자 대상 간호, 복지사업 아이템을 제시한 ‘카인드 고우(Kind Go)’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리측 참가 학생은 권성호(마포고), 안영웅(금오공고), 박경현 이혜민 (원주의료고), 김하연(전주기전여고) 등으로 구성됐다.

사이타마현립 후도오카고등학교에서 참가한 히라타 미오 학생(1년)은 “함께 공부하면서 글로벌 감각을 지닌 한국학생들의 장점을 많이 발견했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한일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경제협회의 이종윤 부회장은 “양국 학생들이 다른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상호간 차이점을 느꼈을 것”이라며 “팀플레이를 통해 하나의 공동 결과물을 낸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미니미산리쿠=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겸 일본경제연구소장 janus@hakyung.com

한국경제

한일 고교생 80명, 쓰나미 피해지역서 상생모델 찾다.

입력 2016-08-05 17:13:11 | 수정 2016-08-07 09:20:23 | 지면정보 2016-08-06 A24면

www.hankyung.com한경 닷컴23회 한· 일 고교생 교류캠프 동행기**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 6여년 아직도 쓰나미 피해복구 중 닷새간 농어촌 일손 돕기 등 진행
양국 학생들 창업아이템 발표시간 고령자 간호· 복지사업 등 아이디어
"조별 행동하면서 서로 깊이 이해해"

요즘 일본 곳곳에선 마쓰리(축제)가 한창이다. 주민들은 수백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축제로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이기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야기(宮城)현 미나미산리쿠(南三陸)초에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가 6년 만에 열렸다. 어촌 주민들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개된 불꽃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80명의 고교생도 불꽃놀이를 함께 지켜봤다. 전날 도착해 처참한 대지진 피해 현장을 둘러본 조성민 학생(서울 경신고 1년)은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곳에서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인간의 위대함을 느꼈다” 고 말했다.

기자는 이달 3일까지 동일본대지진 복구 현장에서 열린 ‘한· 일 고교생 교류캠프’에 동행했다. 닷새간 이어진 농어촌 일손돕기 체험, 창업 아이템 발표회 등을 소개한다.



한일 고교생들이 미나미산리쿠 쓰나미 피해 현장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미나미산리쿠, 지반 20m 높이기 공사 중

미나미산리쿠초는 대지진 당시 최대 20m가 넘는 높이의 쓰나미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입었다. 전체 주민 1만5000여명 중 83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중심부 건물의 80%, 전체의 62%가 유실됐다.

이 지역은 대지진 발생 전까지 도호쿠(동북) 지역을 대표하는 양식과 관광 명소였다. 지난 2일 새벽 묵은 간요호텔 6층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푸른 바다는 거대한 ‘바다 목장’이었다. 5년 반 전 호텔 2층 노천온천까지 쓰나미가 밀어닥쳤다고 설명하는 아베 노리코 여사장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쓰나미가 몰려왔던 해안은 물론 내륙 곳곳에서 산을 깎아 지반을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다카하시 가즈키요 미나미산리쿠초 산업진흥과장은 “2011년 수준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다시 와도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지반을 20m 높이고 있다”며 “공사 기간을 10년으로 계획했으나 현재 속도라면 완공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구 일정이 지연되면서 집을 잃고 가설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상업시설이나 쇼핑시설도 없어 임시 장터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교류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1일 사업 발표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고교생, 공동 창업 아이템 개발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는 올해 23회째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려면 청소년들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94년 1월 도쿄에서 처음 열렸다. 양국의 경제현장을 둘러보고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발표하는 형식이다. 고레나가 가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는 “양국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협업을 통해 리더십을 키우는 게 교류캠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 학생들은 낮엔 농어촌 일손 돕기, 요양시설 방문 등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양국에서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 8개팀은 한국과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을 짜내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캠프 4일째 마을회관에서 열린 사업발표회에선 고령자 대상 간호, 복지사업 아이템을 제시한 ‘카인드 고(Kind Go)’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 측에선 권성호(마포고), 안영웅(금오공고), 박경현 이혜민(원주의료고), 김하연(전주기전여고) 학생이 팀에 참가했다.

사이타마현립 후도오카고에서 참가한 히라타 미오 학생(1년)은 “함께 공부하면서 글로벌 감각을 지닌 한국 학생들의 장점을 많이 발견했다”며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 한·일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양국 학생들이 다른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서로 차이점을 느꼈을 것”이라며 “팀플레이를 통해 하나의 공동 결과물을 낸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미나미산리쿠=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janus@hankyung.com

일본 미야기현서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

송고시간 | 2016/06/23 14:50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고교생이 참여하는 교류캠프가 마련된다.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양국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제 23회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를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본 미야기(宮城)현의 미나미산리쿠(南三陵)에서 연다고 23일 밝혔다.

김윤 회장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쌓는 데 일조하려고 2004년부터 양국 고교생 교류캠프를 열고 있다"며 "양국 청소년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산업 현장 체험과 사업 기획 등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결속하도록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남산리쿠는 미야기현 남부의 어촌 마을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40명씩 선발한 참가자는 이 지역의 부흥현장을 둘러보고 어업 등 산업 체험에 나선다. 지역 활성화와 서비스, 요양·복지, 농업, 양식어업 등으로 팀을 나눠서 실물경제를 배운 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사업제안 발표회도 연다.

협회는 참가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돕기 위해 협회의 비즈니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국어가 능통한 멘토를 팀마다 배치할 계획이다. 캠프 기간에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 미나미산리쿠 여름 축제, 학생 골든벨, 양국 전통놀이 한마당에도 참가한다.

wakaru@yna.co.k

2016년 8월 3일

JENESYS 2016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개최



1.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JENESYS2016의 일환으로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초 □ 센다이시에서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2. 이번 교류 사업에는 한일 고등학생 약 80명이 참가하였고, 10명의 한일 혼성팀으로 나뉘어,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부흥 현장을 견학했으며, 방재 □지역 공헌 등의 내용을 도입한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는 부흥 계획안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기획 □ 발표하였다.
3. 이번 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 고등학생이 피해지역의 현황을 비롯해 일본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정치 등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한일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1) JENESYS2016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의 각국 간의 대외 영향력을 가지고 미래를 짚어질 인재를 초빙 · 파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외교 정책 등 일본에 관한 이해의 촉진 도모와 함께 일본의 외교 자세와 매력 등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으로 대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외교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2)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한일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2004년부터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가 주최하고 지금까지 약 2,100명의 고등학생들의 교류를 이어나가 고 있다.